

가축분뇨 자원화 · 소모성질환 극복 · 국산돈육 차별화

양돈업계 3대과제 해결

“3년간 도출된 3대 양돈현안 3년 걸쳐 해결”



▲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1월 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FTA)시대 국내 양돈농가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1월 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FTA시대 국내 양돈농가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소모성질환 극복, 국산돈육 차별화' 등 양돈업계 3대 핵심과제를 양돈협회가 풀어야 할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3년간 고돈가 기조 속에서 도출된 3대 현안과제를 향후 3년에 걸쳐 해결하기 위한 '3·3·3' 양돈 생존전략방안을 제시했다.

■ 해양배출량 반드시 줄여야

이날 간담회에서 최영열 회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2012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우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지내 축사 신축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 정부예산 확대 등 향후 예산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

양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양돈협회는 해양배출 감축물량 설정 및 감축계획 수립·이행확인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과 공동보조를 맞춰 전국 양돈장 유형별 자원화 모델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자연순환농업 확대 사업 지속 추진

또한 분뇨처리 방식도 규모별로 소규모농가의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를, 중규모는 공동자원화 시설로, 대규모의 경우 자원화 및 정화방류 등 자체처리 등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 연차별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등 단계별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종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과수농업연합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친환경양돈장을 지속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 소모성질환 극복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

이와 더불어 최영열 회장은 소모성질환 극복을 또 하나의 생존전략과제로 강조했다. 올해 도축두수가 1천3백만두에 그칠 경우 농가당 평균 4천만 원씩 모두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국제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모성질환 극복을 위한 생산성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덧붙이고, 양돈협회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세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HACCP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양돈장 낙후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



▲ 최영열 회장이 제시한 '3·3·3전략'은 양돈산업의 핵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양돈산업 생존전략 추진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FTA체결 저지를 원칙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개방화 시대에 대한 기본 대응전략을 가격 보다는 품질 및 차별화로 노선을 정했다.

이를 위해 양돈자조금사업을 통한 조사연구를 확대 실시하여 구체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수입육과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품질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국산돈육브랜드활성화와 사육 단계 HACCP 확대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3·3·3전략'은 양돈산업의 핵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양돈산업 생존전략 추진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